

제10강 오늘날 공자 사상의 의미

(1교시)

◆공자 사상의 의미

※ 학습목표: 논어를 읽는 의미에 대해서 살피고 논어를 통해 공자 사상을 살핀다.

▲논어를 읽는 이유

-학이편 처음부터 적시適時를 말한다. 모든 것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고 본 동양사상에서는 시간 속에서 가장 적절한 매듭을 찾고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지대한 관심사이다. 그에 비해서 그리스사상은 본질을 통한 연역을 시도한다. 연역은 시간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 철학 이후 전개된 본질주의 철학은 시간과 구체적 경험의 위상을 격하시킨다.

-이러한 사유가 위력을 발휘하는 곳은 본질이 비교적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것으로부터 연역이 가능한, 물리적 세계이다. 그러나 인간사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시간 속에서 경험해볼 수밖에 없다.

-본질·법칙으로부터 연역적 사고를 하려는 것은 오늘날 과학과 modernism이다.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postmodernism은 본질로의 연역에 대한 비판과 그것이 격화했던 요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논어를 읽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 깃들어있다.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유봉 자원방래 불여낙호)

-벗이 있어 어떤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문장은 공자가 학파를 만들어서 제자가 늘어나고, 그 학파의 제자가 늘어나고, 뜻을 함께하고, 자신의 학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인부지이불은 군자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움을 품지 않으니 바로 그것이 군자가 아닌가?

▲子曰 巧言令色 鮮矣仁.(자왈 교언영색 선의인)

-말이나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는 사람 치고 인자가 드물다.

▲공자사상과 언어·文

-노자는 언어 자체가 사람을 속인다고 한다. 반면 공자는 언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이 언어를 떠나서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선불교나 노자의 사상은 언어 밖의 세계를 지향한다. 그것은 무위의 세계다. 반면 공자는 위의 세계에 있다. 위는 사회라는 장 속에서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위의 세계가 성립할 때 언어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이다.

-언어는 분별하고 이름을 붙여서 구분하고 기호들을 범주화한다. 즉 상징계이다. 공자는 상징계를 다듬고 진실 되게 만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文의 세계이다. 文을 가다듬고 승화시키는 것이 공자의 관심사이다.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자왈 도천승지국 경사이신 절용이애인 사민이지)

-국사를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하여 믿음이 가게 해야 하며, 예산을 절약함으로써 아랫사람을 아끼고, 민을 부릴 적에 농사에 관한 때에 맞추어야한다.

(2교시)

◆ 논어 속에 나타난 공자의 사상

※ 학습목표: 논어를 통해 공자의 사상을 살핀다.

▲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子曰 君子 不重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자왈 군자 불중즉불위 학즉불고 주충신 무우불여기자 과즉물탄개)

- 不重則不威는 통치자 계급이 피통치자 계급에게 우습게 보이면 우가 없다는 뜻이다.
- 學則不固, 학문을 해도 견고하지 않다.
- 無友不如己者는 ‘자신보다 못한 자’ 보다는 ‘자신의 뜻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로 보아야 한다.
- 過則勿憚改은 허물이 있으면 깨닫고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이다.

▲子曰 君子 不重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자왈군자 불중즉불위 학즉불고 주충신 무우불여기자 과즉물탄개)

- 가난하되 아첨하지 않고 풍요하되 교만하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있는 데서 즐겁게 살고, 돈이 있다고 해도 예가 있는 것만 못하다. 시에 이르기를 자르고 다듬고 쪼개고 가는 것이 그것을 말하겠군요. 이제야 시를 논할만 하구나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불환인지불기지 환불지인야)

-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